

# 부처님 탄생시기 알려주는 신전 발견



로빈 커닝햄 교수 발굴팀이 마야 데비 사원에서 발굴작업 중에 있다. <출처: 아이라 블록/내셔널 지오그래픽>



마야 데비 사원의 전경. 앞에 있는 호수는 아기부처님이 몸을 씻은 물이라 여겨 신성시되고 있다.

## 영 발굴팀, 네팔 마야 데비 사원에서 B.C 6세기 목조 신전 발굴

부처의 탄생 설화를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이 네팔 룸비니 마야 데비 사원에서 발견됐다. 불교가 기원전 6세기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첫 고고학적 발견이다.

11월 25일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영국 더럼대 로빈 커닝햄 교수가 이끈 15명의 발굴팀이 마야 데비 사원 벽돌 밑을 조사하는 작업 도중, 아소카 시대 이전 석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탄소방사성 측정 결과 기원전 800~550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건물 또한 발굴했다.

이로써 기원전 3세기 불교를 중흥시켰다는 아소카왕 관련 유물이 불교를 역사적으로 증명해주는 가장 오래된 사실적 증거였지만 이번 발견으로 그 시기가 300년이나 앞당겨지게 됐다.

그간 마야 데비 사원은 부처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을 뿐, 석가모니 탄생 당시의 건축물이나 유물은 전무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현재 사원에 남아있는 벽돌 구조물은 1896년 유적이 발견되면서 후대에 조성된 것이며 아소카 석주 또한 기원전 3세기 것으로 부처의 탄생시기를 명확히 짚어주지 못했다.

유적은 신전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가운데가 비어있는 특별한 구조다. 발굴팀은 그 공간에 나무뿌리가 남아 있고 그 주변을 특별히 관리한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낳을 때 짚았던 나무가 아닐까하고 추정했다. 목조 신전을 보호하기 위해 후대에 벽돌로 위를 덮기도 했다.

발굴팀의 말처럼 나무가 석가모니 탄생 설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나무인지는 확인

### 신전 주변 나무 숭배 흔적 두고 의견 엇갈려

### 발굴팀, 부처님 탄생 설화 속 나무일 것

### 전문가, 인도 전통 신앙 의식이었을 수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처의 생존 시대를 규정해주는 최자선이 생긴 것만은 틀림없다. 그동안 부처의 탄생 시기는 3세기에서 6세기까지 각기 다르게 추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견으로 부처가 최소한 6세기 이전의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부처가 2600년 전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석가모니 가르침에 녹아든 당시 사회와 경제 상황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국가에 대한 개념이 자리

스)를 통해 그 의의를 평가했다. “초기불교에 대한 대부분의 역사적 연구는 아소카 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교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까지 전파한 인물이니깐요, 그러나 그보다 두 세기나 앞선 목조 신전은 불교가 그때부터 이미 힘있는 후원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를 숭배하는 정신이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거죠. 또한 발견된 목조 신전을 통해 초기 불교 신전

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종교에 대한 믿음과 역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유물 등이 함께 어울린 드문 경우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발굴을 두고 성급히 의미부여하는 것에 조심스러워하는 반응도 있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루스 영 교수는 “발견된 목조 신전이 불교 신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고고학자들은 자신의 발견에 최초나 최고(最古)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런던대학의 줄리아 쇼 교수 또한 발굴팀의 주장을 선불리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했다. 쇼 교수는 “나무에 대한 숭배는 고대 인도 종교에서 보편적인 일이었다. 때문에 이번 발견은 인도 전통과 불교가 혼합돼 있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램 쿨마르 쉬레스타 네팔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번 발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네팔 정부는 의미 있는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발굴 작업은 사원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자는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팔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협력 하에 이루어졌다.

5억명에 달하는 불교신자 중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룸비니를 찾는 만큼,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커닝햄 교수는 “2020년에는 400만 명의 순례객들이 다녀갈 것”이라며 “마야 데비 사원에 대한 보존과 연구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발굴팀은 땅 밑에서 해야 하는 발굴 작업의 특성상 지하수면이 가장 낮은 때인 겨울에 관광객들, 스님, 순례자 사이에서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사원 내에서는 신발이 금지된 탓에 슬리퍼를 신거나 맨발로 일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mus@hyunbul.com

# 스님들의 체벌로 단기 출가 꿈 접어

## 방글라데시, 텐진·노르부 형제 사원서 탈출

불교가 소수 종교에 머물러 있는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단기 출가에 나선 형제들이 사원 스님들의 폭력에 끝내 사찰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다.

<힌두(The Hindu)>지는 11월 27일(현지시간)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의 한 불교 사원으로 단기 출가를 나섰던 셰르파(Sherpa) 형제가 사원을 탈출한 후 첸나이(Chennai)에 도착, 아동복지위원회(Child Welfare Committee)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하고,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도이고, 매년 해볼 사건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세계 불교계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르부(Norubu · 7)와 텐진(Tenzin · 10) 형제가 2개월 전 단기 출가한 사원은 카르나타카 주의 세라제(Sera Je) 사원이다.

“처음 그곳으로 갈 때는 무척 행복했다”는 텐진은 “그러나 사원에서 스님들의 체벌이 반복되면서 사원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결국 동생과 함께 도망쳐 첸나이 중앙철도역사 인근에서 노숙했다”고 말했다.

이후 노르부와 텐진 형제는 아동복지위원회(Child Welfare Committee) 측의 도움으로 벵갈 서쪽 잘파이구리(Jalpaiguri)의 나부 바자르(Nau Bazaar)에 살고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아동복지위원회 폴 순더 싱(Paul Sunder Singh) 대변인은 “아이들을 발견한 후 가족을 수소문했고, 이와 함께 세



방글라데시에서 단기 출가에 나선 텐진·노르부 형제가 사원 스님들의 폭력에 끝내 사찰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다.

라 제 사원의 스님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며 “아이들의 희망에 따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형제의 친할머니 카르마(Karma)는 “손자들을 사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생각은 없다”며 단호히 말하고, “손자들의 희망에 따라 사원으로 단기 출가를 보냈는데, 그들이 손자들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두 형제의 큰형 아누프(Anup)는 “우리 집안은 자년 한 명 이상을 단기 출가 보내는 전통을 지켰을 지겨오고 있다”며 “다섯 형제 중 락파(Lakpa)는 스님이 되었고, 이를 지켜 본 노르부와 텐진 역시 스님 되길 희망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힌두(The Hindu)> 지는 “노르부와 텐진은 27일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첸나이 중앙철도역에서 나부 바자르(Nau Bazaar) 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이스라엘에 불교사원 건립된다

## 스리랑카 외무성 밝혀... 7000여 스리랑카인 서원 이뤘

스리랑카 불교사원이 이스라엘 심장부에 세워진다.

<데일리 미러(Daily Mirror)> 지는 11월 26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외무성의 자료를 인용, “이스라엘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텔 아비브(Tel Aviv) 지역의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에 스리랑카 불교사원이 건립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7,000여 명의 스리랑카 공동체의 간절한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의미를 더한 담마티라카 테라(Ven. Dhammathilaka Thera) 스님은 “그동안 스리랑카 공동체는 가정집에서 ‘구역 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키워왔다”며 “이를 지켜본 이스라엘 주재 사라스 위제시게(Sarath Wijesinghe) 대사의 노력이 더해져 기독교 성지에서 ‘불교사원 건축 불사’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텔 아비브 지역에 착공될 사원은 스리



이스라엘의 스리랑카 불교공동체는 매주 가정집을 방문, 구역법회를 봉행해 왔다. 사진 중앙 좌측 부채를 들고 있는 스님이 이스라엘 스리랑카 불교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담마티라카 테라(Ven. Dhammathilaka Thera) 스님이다.

랑카 전통의 불교사원 모습일 것”이라고 전해온 사라스 위제시게 대사는 “이는 이스라엘 최초의 스리랑카 불교사원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텔 아비브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연꽃으로 피어난 부녀의 화해

## 아일랜드 볼드윈 연꽃무늬 문신 화제

할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과 킴 베이싱어의 딸, 아일랜드 볼드윈(Ireland Baldwin)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공개한 ‘연꽃무늬 문신’에 대한 해석이 이채롭다.

<메일 온라인(Mail Online)> 지는 11월 27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볼드윈이 18세를 맞아 자신의 팔에 새긴 연꽃무늬 문신은, 평소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인 알렉 볼드윈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용서와 화해의 손짓이지 않겠냐는 해석이 많다”고 전했다.

볼드윈과 베이싱어는 지난 2002년 9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했다. 두 사람은 당시 6살이던 딸 아일랜드의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으며, 지난 2007년에는 볼드윈이 딸에게 육질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후 볼드윈은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으로 딸과의 사이가 더욱 툇독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지난해 7



아일랜드 볼드윈(사진왼쪽)이 18세를 맞아 자신의 팔에 새긴 연꽃무늬 문신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월 알렉 볼드윈이 26세 연하의 여자 친구와 웨딩마치를 올릴 당시, 결혼식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피플(people)> 지에 따르면 아일랜드



볼드윈은 올해 초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 엠마 킴 베이싱어의 뒤를 이어 모델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자의 금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법 /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